불갑사지구 관광지에서 불갑수변공원까지 PM 시험주행

영광군, PM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주행노선 및 안전성 검토…실무진 직접 시험주행

영광군은 지난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PM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불갑사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갑사지구 관광지에서 불갑수변공원 구간까지 PM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PM(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장치)을 몸소 체험하면서 주요관광지 인근을 순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불갑사지구 관광지에서 불갑수변공원까지 불갑천 상류 하천제방도로와 농어촌도로를 이용한 PM 주행 도로(왕복 7.3km)를 설계 중에 있으며, 주행노선 및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실무진들이 직접 시험주행도 실시하였다.

금번 시험주행을 통해 하천 제방도로 안전시설 설치 여부, 도로 주행 방향, 도로 횡단구간 등을 확정할 예정이며, 특히, 요철구간에 대하여는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 시 면밀히 검토하고, 기 수립된 「e-모빌리티도로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준하여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PM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직영 또는 위탁운영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위탁운영 시 기반 시설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목포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 6577억원 반영

신재생에너지 · 수산식품 · 관광사업 등 3대 전략사업 추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목포시 관련 예산 80건 6,577억원 반영됐다.

이는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결정된 중앙 부처(안) 6,217억원 보다 360억원이 증액된 액수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대형 SOC사업 분야에 ▲목포~보성 간 남해안철도 건설 및 전철화 2,542억원 ▲목포~송정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2,000억원 ▲국도77호선(압해~화원)연결도로 개설 298억원 등이 반영됐다.

항만개발 사업 분야로는 ▲목포 남항 투기장 환경개선 4억원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132억원 ▲신항 배후단지 조성 106억원 ▲신항 대체 진입도로 개설 3억원 ▲스마트 선박 안전지원센터 구축 18억5천만원 ▲목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10억원 등이 확보되어 목포의 항만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할 사업 분야에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37억원 ▲전남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33억원 ▲첨단소재 융합제품 상용화 기반강화 25억원 ▲친환경 대체연료 실증 기술개발 72억5천만원 ▲전기 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130억원 ▲수출전략형 김 가공제품개발 11억원 ▲수산식품 수출단지조성 10억원 등이 계상되어 시의 3대 미래전략사업인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수산식품산업이 원활히 추진될 전망이다.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 80억원 ▲호남권 평화+통일센터 건립 27억원 ▲생활형 SOC사업인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주거지 주차장포함) 31억5천만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65억원 ▲어촌뉴딜사업 58억8천8백만원 등이다. 도시재생사업으로는 ▲근대문화사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억원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10억9천8백만원 ▲1897개항 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 51억2천만원 ▲서산동 보리마당 뉴딜 33억1천만원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사업 10억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20억원 등이 포함되어 근대역사문화의 보고인 원도심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10~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목포=박정수 기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스티커

영암군, 마스크 착용 권고 스티커 제작

영암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군은 마스크 착용 권고 스티커를 제작하여 버스, 택시,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배부 후 종사자 및 이용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방역 수칙 준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버스, 택시,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은 마스크 착용이 가장 현실적인 방역대책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군-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랑의 집짓기 in함평' 업무협약

저소득 아동 가정 무료로 새로운 보금자리 지원

함평군은 지난 2일 군청 군수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전남지역본부장 박수봉)과 '사랑의 집짓기 in 함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사랑의 집짓기는 사회 각계각층의 지원을 받아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 가정에 무료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각 기업과 사회단체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며 사업비 역시 민간 기업이나 각종 단체, 개인 후원금으로 전액 마련된다.

올해 군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손잡고 지역 저소득 아동가정에 주택 신축 등의 주거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지원 대상은 엄다면 저소득 아동 가정으로 지난 집중호우 때 주택 붕괴 등의 큰 피해를 입은 수해 이재민 가구다.

이상익 군수도 이날 협약식에 앞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위한 '함평군민 1호' 정기기부에 서명하며 지역 소외 아동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왼쪽: 박수봉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장, 오른쪽: 이상익 함평군수.

올해 민방위훈련 비대면 사이버교육

무안군, 이달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교육 1시간 이수

무안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민방위훈련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1~4년차 대원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9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민방위 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민방위 사이버교육(https://www.mbed.co.kr)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 후 민방위 제도의 이해, 임무와 역할 등 교육을 받으면 된다. 교육시간은 1시간이며 진도율 100%,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70점 이상이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비대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기한 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추석 명절 대비 영광사랑상품권 불법유통 특별 점검 실시

법 시행 불법유통 적발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광군에서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영광사랑상품권의 불법유통(속칭'상품권 깡') 예방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3달간 '영광사랑상품권 불법유통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투자경제과에 '상품권 불법유통 특별점검'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개인 및 가맹점을 통한 현금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추가금액 요구, 물품거래 없는 상품권 환전 등의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홍보하여 상품권 건전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불법유통 사례가 적발될 경우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을 즉각 취소하고,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상품권법 위반 행위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기관에 세무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목포시, 코로나 안심 여행환경 조성

목포시가 주요 관광지 곳곳에 코로나 방역요원을 배치하며 안심 관광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로 시행되며 9월부터 12월까지 주요관광지 등 25개소에 방역 · 관리요원 총 66명이 투입되어 진행된다.

시는 근대역사관1 · 2관, 춤추는바다분수, 유달유원지, 국제여객선터미널 등 주요관광지와 교통 거점지에 방역요원을 지정 배치해 관광지 방역,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수칙 지도, 안전관광 환경점검 활동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며, 시 관계자는 "안심관광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